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추수감사주일예배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감사하는 성도여(찬306/새587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종민 장로 2부/방모세 집사 3부/박호성 집사 4부/김규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은혜라 (손경민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호세아(Hos.) 5:1-6:3 ..... Altogether **다같이**  
4부/창세기(Gen.) 22:1-14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 AFC(6) **좁과 사자가 감사의 비가 되기까지**

4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2,3부/감사
- 성찬식 Communion ..... Altogether **다같이**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비 준비하시니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클래식 음악 1%

## Classical Music 1%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보스턴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벤자민 잔델은 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3%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4%로 올릴 수만 있다면 세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 지역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일 날 가자 스트립에서 살던 피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자기 살던 땅으로 50만 명이나 돌아왔습니다. 하마스는 20명의 살아있는 이스라엘 포로를 사망한 포로와 더불어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1,700명의 팔레스타인 포로와 250명, 종신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포로를 풀어 주기로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수천수만 명의 인명 피해를 주던 전쟁이 끝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화성-20형 ICBM 비밀병기를 등장시켰습니다. 보기만 해도 살기가 느껴집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달라도 어쨌든 비슷한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델 음악감독이 말처럼, 현재 82억 인구의 1%인 8천 2백만 명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 유익을 저 나름대로 정리하면, 첫째로 떠오르는 유익은 협력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려면 협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하모니를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지휘자의 통솔 안에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유익입니다. 둘째로, 음악이 주는 메시지 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잔델은 "성공은 재산, 명예, 권세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빛나는 눈들이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음악 안에서 공감할 때 촉촉해지는 눈입니다. 그때 속에 응어리진 한 맺힘이 한 순간에 녹아 내리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은 셋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가끔 우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법은 고대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목사인 저는 잔델이 말하는 클래식 음악 1%가 진정한 크리스천 1%라면 세계는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합니다. 복음의 유익은 클래식 음악의 유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메가톤급 아닐까요?

Benjamin Zander, music director for Bosto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said the following in a lecture. "Three percent of population likes classical music. If only we could move it to four percent, our problems would be over." He is speaking of the influence that classical music has on people. Not too long ago, it was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seize-fire between Israel and Hamas. On the day of the seize-fire agreement, 500,000 refugees living in Gaza Strip returned to their homes in celebration. It was agreed that Hamas would release 20 living hostages along with the deceased, and Israel would release 1700 detainees and 250 prisoner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It is such a relief that this war that costed tens of thousands of lives has finally ended. There is a war that still hasn't ended. Not too long ago, North Korea revealed their secret weapon, Mars-20 ICBM at their nation's 80th anniversary military parade. Just looking at it gave me chills. The Russia- Ukraine war hasn't ended either. There are serious issues constantly arising around us. Things look different, but similar issues arise in our families.

Like what the music director Zander said, if 1% of current population of 8.2 billion, 82 million people likes classical music, can we find answers to these issues? It makes us think deeply. When I think about this question, as a person who likes classical music, the first benefit that comes to my mind is cooperation. To play in an orchestra, cooperation must take place. You must harmonize together. It's the benefit of learning to listen to other's sound under the conductor's command. Second, it's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the message from music. According to Zander, "It's not about wealth and fame and power. It's about how many shinning eyes I have around me." They are the eyes that become moist when empathized with music. It is an experience when resentments that had been pent up inside melt away in an instant. That empathy gives hope for tomorrow. When we feel insecure, we often listen to music. Healing people from psychological issues with music is a method that has been known since old ages.

As a pastor, if that 1% classical music Zander talked about is 1% true Christian, I think about how different the world would be. Wouldn't the benefit of gospel be on a mega-level scale higher, incomparable to the benefits of classical music?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 L AFC-6

LOVE ALWAYS FINDS CHRIS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좁과 사자가 감사의 비가 되기까지

(호 5:1-6:3)

1.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2.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대목들을 찾아 보십시오.(5:1-11절)
  
3.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 가는 백성들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12절-13절, 참고/사진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었나요?
  
4.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14절)
  
5. 사자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15절, 6:1-3, 참고/사 53:5-6, 뱀전 2:24-25)
  
6.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6:2)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자 같은 주님이 취하신 모습은 무엇인지,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참고/창 49:9, 사 31:4, 계 5:5-6)



■ 적용찬양: 감사

사역 소개  
수요저녁예배

# 세상을 이기는 비밀, 수요예배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끝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주일예배에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실패와 서러움과 부족함과 두려움, 안타까움과 불편함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베델교회에 주시는 큐티 말씀도 하고, 혼자 기도와 묵상을 하지만 뭔가 모를 허전함과 나태해져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성

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있을까 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드리는 저녁 예배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주일예배 때 여건상 못 하였던 찬양을 마음껏 부르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며, 조금은 자유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아 다시 한번 주일까지 뛰기를 다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한 예배에서 유년부 아이들부터 나이 지긋한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특히 젊은 예살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서 느끼지 못하는 활기참과 좀 더 친숙하고 가까워진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요예배의 특별함이며, 이를 통하여 좀 더 친숙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분당 앞에서 커피와 스낵을 먹으면서 성도 간

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예배와 교제를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찬양팀, 안내팀, FD팀, 조명, 영상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의 섬세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서 더욱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밀을 알려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요예배가 한 주의 중심에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 확신하며, 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시 저녁 예배로 돌아온 수요예배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김중학 집사

사역 후기  
새가족 환영회

## 만남의 축복

안녕하세요.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며 베델의 한 가족이 된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 더운 기후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남편과 함께 상의 끝에 아이가 자라기 좋은 어바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곳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베델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수요일 아기학교와 주일 유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들려줄 수 있어 매주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며 만나게 된 김 권사님과 귀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새가족부 목사님의 환영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 속에서 든든한 신앙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쾌한 말씀과 편안함을 전해 주시는 조 목사님, 그리고 따뜻한 사랑셀 식구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지금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입니다.

새가족 환영회 자리에서도 따뜻한 교제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께 돌려보내야 함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베델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를 향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수 집사



추수감사절 특집  
감사의 글

# 감사의 시작, 예수그리스도



세상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서인지 감사는 마치 묻혀 있는 보배처럼 찾아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난 지 오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마른 감사만 일상에서 반복될 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언제였는지 기억의 저편에 있습니다. 한 생애를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게 불현듯 찾아온 병마로 말미암아 묻혀 있던 귀한 감사의 보물들이 따뜻한 가족, 주신 것과 모르고 있던 내 옆의 귀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열어 가게 해 주신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셔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러지는 감사,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감사 회복을 주심에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강은혜 집사

지난 주일은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준 아이들과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자축했고, 좋은 환경, 좋은 친구,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나

님께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과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자존감은 저를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사건 사고들은 늘 있겠지만,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저를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임을 되새기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김고훈 집사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의미 있는 사역들에 참여하며, 여러 따뜻한 성도분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고, 20년 넘게 피하던 도전적인 영적 훈련, 전도폭발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에도 첫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매 주를 돌아보며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진심 어린 웃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각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기회와 도전, 그리고 만난 소중한 분들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스러운 셀식구들과 함께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

하고 삶이 풍성했던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모든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원 집사

2025년을 한 달 앞두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제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사업장의 시작, 자녀들의 결혼, 기도의 응답들-그 어느 것 하나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흔들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은주 집사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장 힘든 시기에 지인으로부터 '감사노트'라는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적는 책인데, 5가지 감사한 일을 적고 표현하는 것이 하루의 숙제였습니다. 처음 3가지 정도는 술술 적어 내려갔는데, 4번째부터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썼던 감사노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사방이 막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안정했던 당시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옛날의 나를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분명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그때보다 더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이해가 가지 않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고난이 아닌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감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정연 집사

교회학교  
감사의 글

# 함께 해서 행복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족하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올 한해도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큐티와 오이코스 예배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되고, 주일 예배와 수련회를 통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축복이자 감사 제물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의 신앙의 한 부분을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PTA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집사(교사)

올해도 온 가족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과 중·고등학생인 두 딸과 함께 여름 단기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를 섬기며 매 주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담임목사님과 교회 곳곳

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섬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베델교회의 성도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미옥 집사(교사)

I feel very happy today. I want to thank God for everything this year. God made my happy family and my mommy,daddy and my big sister Claire. Thank you, God, for making me strong and safe every day. I also love Church School. Thank you to the kind teachers! They teach me good things. I am thankful for all my fun times this year!

Clara Huh(Kindergarten)

I'm grateful that I can wake up each day and walk to school to see my friends. I'm thankful that I can return home to a loving family. I'm also grateful that I can come to church each week to worship God and spend time with my friends. I'm especially thankful for the bonds I've made at church and for the caring pastors and teachers who guide me.

Kate Park(7학년)



예삼  
감사의 글

#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감사'는 파스우면서 부담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며 쉽게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현승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 이라는 시를 통해 감사가 자신과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듯 하나님께서는 올해 들어 제가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 하루씩 가까워지는 소망 없던 존재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입안에 대가 없이 사랑으로 신약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제 주인이심을 깊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감사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

한 권리가 아닌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저에게 선물하신 또 다른 기적 같은 하루의 시작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지만 더는 자기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저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제 자신을 자책과 자기 연민으로 대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결국 감사의 비밀임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김승준(청2)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날만큼 특별히 무엇이 감사한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중 특별히 나누고 싶은 감사는,

올해 처음으로 다녀온 뉴멕시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 그리고 뉴멕시코 땅에 도착하여 그 나라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모든 사역과 여정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그때의 기억과 감격이 되살아나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베델의 성도님들도 각자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시길 바라며 오직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최유진(청3)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찬송/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양로병원 사역 안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양로병원 사역의 목적은 우리 교회 인근 양로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병실을 심방하며,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원하는 분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는 어르신들의 믿음과 병상에서도 자녀와 후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르신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 세례식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클라리넷, 오토하프, 하모니카, 팬플루트, 아코디언 등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연주자들과, 솔로/중창/합창/워십댄스로 함께하는 찬양팀과 학생들, 그리고 귀한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동역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봉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 ▶ 시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 ▶ 장소: 첫째 토요일: Sun Mar 양로병원(애너하임시 소재)  
셋째 토요일: The Grove Post Acute 양로병원(가든그로브시 소재)
- ▶ 문의: 이해원 집사(714) 788-383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11/30: ①부-김태현	②부-박원규	③부-박영선	④부-도함준
12/7: ①부-박지학	②부-백영만	③부-배진용	④부-김도윤
12/14: ①부-송기평	②부-백권기	③부-변 진	④부-김수빈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12월)   11/29: 박기준	12/6: 김 샘	12/13: 김흥순	12/13: 박관규
강단꽃(11,12월)   11/23: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11/30: 서은숙, 이종선, 주정숙	12/7: 이지민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김심미      다음주 | 의사-김홍일(성형외과), 간호사-강지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외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외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추수감사 헌금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추수감사헌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 오늘(23일)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교인은 일회용 성찬기를 본당 로비에서 픽업하시고, 사용한 성찬기는 예배당 밖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및 터키 만찬** 오늘 오후 4시에 목장별 추수감사축제가 있습니다. 'The Story of Bethel'이란 주제로 목장별 장기자랑과 만찬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오셔서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문의: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베델 사진관 운영** 오늘(23일) 각 예배 시간 후 코트야드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상곤 장로 (949)678-4004

◆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회 안내** 추수감사절 주간에도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추수감사절 당일 포함)는 평소와 같이 드려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벽기도회 일시: 화-금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일시: 11월 26일(수) 저녁 7시 30분  
 수요예배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오이코스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베델기도사역팀(기도학교,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편지, 연합기도)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2월 2일(화)-5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및 OICOS 예배 특송: 베델기도사역팀 (손우주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2월 6일(토) 오전 6시, 본당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기도학교, 온라인 두드림, 기도편지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9일(토) 헵시바예배 후 오전 7시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베델한국학교 2026년 봄학기 등록**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한국학교가 2026년 봄학기 재학생 조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할인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학기 일정: 2026년 1월 24일-5월 16일(16주, 4월 4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학습 내용: 영성훈련(QT),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등  
 신청 대상: 만 5세 이상부터 K-12학년 (2025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기간 및 등록금: 11월 15일(토)-23일(주일), \$410(기간 내 완납 시)  
 등록 사이트 : <https://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QTin 영문판(12월) 판매** 12월 월간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내년 1월호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내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구독 할인을 진행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qtin.org](http://www.qtin.org))

◆ **정기 제직회** 12월 6일(토) 오전 7시 30분, 오이코스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임직자 투표, 2026 예산안)로 모입니다.

◆ **추수감사절 사무실 휴무 안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1월 27일(목), 28(금) 교회사무실이 휴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CI Sounds of the Season-Choral 콘서트** Irene Messloras 교수의 지휘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올해로 세 번째 열립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  
 주최: UC Irvine Claire Trevor School of the Arts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영수 집사님(김유태 집사의 모친, 김신영 집사의 시모)께서 11월 17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서덕재 성도님(이크리스티나 집사의 부친)께서 11월 18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1. While attending our church, was there a time you forgot about God (even for a moment)?
  
2. Find passages of forgetting about God in today's scripture. (5:1-11)
  
3. How does God appear to his people who are forgetting about him? (v.12, 13, Ref: Pictures)  
Has God ever come to you in this way?
  
4. Nonetheless, how does God, at times, appear to his people who does not return? (v.14)
  
5. What is God's purpose in appearing like a lion? (v.15, 6:1-3, Ref: Jg 53:5-6, 1Pe 2:24-25)
  
6. To complete the words, "on the third day he will raise us up..." (6:2), what form does God take that is like the lion.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Ref: Ge 49:9, Jg 31:4, Rev 5:5-6)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I'm thankful for breathing today